

2008년 원자력발전소 이용률 93%

고장·정지건수 감소가 원인 ... 2007년보다 3.1%p 상승 선진국 앞서

2008년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고장 및 정지 건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원자력발전소 이용률이 세계 최고수준인 93.4%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고장 건수는 모두 14건으로 예년 평균치인 20건보다 크게 줄었으며 정지 건수는 9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밝혔다.

원인별로는 계측결함으로 인한 고장과 정지가 각각 5건과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적오류에 의한 고장과 정지가 4건과 2건, 전기결함에 의한 고장과 정지가 3건과 2건, 기계결함에 의한 고장과 정지가 2건과 1건을 기록했다.

부지별로는 고리가 고장 5건, 정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울진이 고장 3건, 정지 2건, 월성이 고장·정지 각 2건, 영광이 고장 4건, 정지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원자력발전소의 고장·정지가 줄면서 최대 발전 가능량 대비 실제 발전량을 나타내는 이용률이 93.4%로 2007년보다 3.1%p 상승해 미국(2007년 기준 91%)과 프랑스(76%)를 상회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인적오류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성능확인 시험과정 등에서 기기조작 실수 등에 의한 원자로 정지가 발생하고 있다”며 “근원적인 예방을 위해 작업자 간 의사소통 체계 개선과 인간공학적 설비 구축 등 인적오류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을 통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 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1/05>